" 갈릴리로 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 "

< 마태복음 28장 10절 >

-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구로, 교육의 장으로 사용하시는 또 다른 신앙공동체입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가정의 경건회복을 위해 노력합니다.
  - 7일 어린이주일(어린이사랑방 예배준비)
  - 14일 어버이주일. 공동체운영위원회
  - 21일 청소년주일(푸른꿈사랑방 예배준비) 탁구대회 예선.
  - 28일 젊은이주일(늘푸른.젊은이사랑방 예배준비) 성년축하. 성령강림주일.(성찬식) 탁구대회 결선.
- 공동체운영위원회 37차 임시회의 다음 주일 오후에 모입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정낙귀 집사 · 정혜정 권사 가정 (감사)
김기환 · 차현주 집사 가정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0 - 19 호
2023년 5월 7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랑방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어린이들을 통해 꿈을 꿉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초등학생들이 답한 일명 웃긴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물리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지구에서 가장 강한 힘은?"이었고 정답은 '중력'이었습니다. 물리 문제니까요.
그런데, 초등학생이 이렇게 답했답니다. "사랑!!"
과연 이 답을 본 선생님은 맞았다고 했을까요? 틀렸다고 했을까요? 선뜻 대답하기 어려우신가요?
'어린이'라는 말의 뜻에는 '어리다' '어리석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가끔은 어린이들이 세상을 더 지혜롭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지나면서 1923년 그 시대의 어린이들의 사회적 위치를 생각해볼 때 더욱 어린이날을 만들고 어린이를 한 사람으로 대우하라던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깊은 사랑과 뜻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린이들이 한 인격체로 대우받지 못하여 부모의 소유물처럼 여겨지고 너무 쉽게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던 그 때, 선생님은 어린이들에게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셨고 '어린이'라는 호칭을 널리 사용하게 하시면서 어린이들을 한 사람으로 높여 대우하라 하셨다고 합니다.
1920년 우리나라 보다 예수님이 사셨던 2000년 전의 유대 사회는 더하면 더 했지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구수에 여인과 아이들은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사회였으니 어린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여기고 대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겠죠.
이런 중에 신약의 몇몇 사건들은 어린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오천명이 넘는 많은 무리들이 배고파하는 상황에서 제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 당황해합니다. 그런 중에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6장 9절에는 한 어린이가 등장합니다.
안드레가 데려온 어린이의 손에는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들려있습니다.
제자들은 머리로 돈을 계산하고 있을 때, 이 어린이는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것을 나누려 하지 않았을까 유추해봅니다. 바로 이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오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이루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기적의 조력자는 단연코 이 어린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이가 가져온 작은 것이라 하여 무시하지 않으시고, 천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것으로 기적으로 이루셨습니다. 그 마음과 믿음까지도 받아주신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깝게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우왕좌왕 할 때 이 어린이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런 어린이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라는 다툼의 자리 한 가운데 어린이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는 누가복음 18:17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어린이들임을 선언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사랑'인 것을 알고 있는 어린이들이 진정한 지혜자들이 아닐까요? 믿음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 어쩌면 어린이들이 더 잘 알고 실천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정말로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비법을 배워야 하는 건 아닐까요?
이러한 하늘나라의 주인들인 우리 사랑방의 어린이들을 통해 미래를 꿈 꾼다는 것.
가능하지 않을까요?

디아코니아사랑방 장영미 전도사

한주간의 말씀

"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
<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권재만 목사
찬송 : 191장, 289장 / 336장
기도 :
성경 : 사도행전 15장
제목 : 교회의 문제해결

1. 내용: 교회의 문제 해결. (What)
   1~21 예루살렘 회의
   22~35 교회에 보내는 편지
   36~41 바울과 바나바의 헤어짐

2. 의미 : [실제적] 문제를 다루었다. (Why)
   1)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였다. (v.4)
   2) 짐을 덜어줬다. (v.28)
   3) 서로 갈라섰다. (v.39, 40)

3. 적용 : 우리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How)
   1) 믿음으로 얻은 은혜로 구원받는다.
   2) 서로의 짐을 덜어주자.
   3) 우리 관계를 돌아봐 화해하자.

어린이의 좋은 점

저는 그루터기에 사는 권하민 어린이입니다. 어린이날은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만들어 주신 날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어린이여서 좋은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어린이학교에 다닐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2. 매일 공부를 할 수 있어 지식이 생깁니다. 3. 생각하거나 느낄 수 있는 게 많아서 참 좋습니다. 4. 엄마와 어른들이 도와주십니다. 5. 좁은 공간을 쉽게 다닐 수 있습니다. 6.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어느 대학이든 갈 수 있습니다. 7 무엇보다 마음껏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습니다. 8. 어린이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9. 어린이날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어린이라는 사실이 무척 좋습니다.^^ 어린이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이사랑방 권하민

진지의 편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화진지입니다. 저는 이미 학교에 두 달째 다니고 있으며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제가 매일 행복한 이유는 어린이학교 친구들과 축구를 하거나 화요일에 풍물을 연습하기 때문입니다. 2월에 교회에 왔을 땐 한국어를 몰랐지만, 지금은 선생님과 친구들이 말하는 것을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의 도움 덕분입니다. 가끔 짜증이 날 때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 탓이 아니라 제 성격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참아낼 수 있는 인내심도 생겼습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의 사랑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어린이가 있다면 언제든지 도와줄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바는 수업 시간에 잘 따라가는 것과 주일 예배 설교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2주 동안 친구들을 볼 수 없지만, 저를 잊지 마세요. 돌아올 때 맛있는 것들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어린이사랑방 화진지

주일공동예배

인도자 : 김진율어린이
오전11시 설교자 : 정재훈 목 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초청의 말씀	마태복음 18 : 2-4	인도자
*예배의 찬송	565	다함께
*기원의 기도		인도자
*기원찬송	영광 영광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참회의 기도		
*용서의 말씀	시 편 32 : 5	인도자
*신앙고백		다함께
고백의 찬송	563	다함께
공동기도		다함께
목회기도	〈대표기도〉	최시현 어린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성경낭독	마가복음 10 : 13 - 16	최진용 어린이
성가대 찬양	작은 제자	어린이·꾸러기사랑방
설 교	" 어린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의탁의 기도		설교자
응답의 찬송	564	다함께
*봉헌기도		정아영 어린이
*영광찬송	주님의 사랑이	다함께
*위탁의 말씀		설교자
*강복기도		설교자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서예준 최민용 권하온 권하성 / 봉헌위원 : 권하민/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솔 석지인 옥대철 / 꽃꽂이 : 김영화

공동기도문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기며,
잘 기르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어린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님을 찾아온 어린이들. 예수님께서 어느 한 집에 머물면서 쉬고 계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쓰다듬어 주시길 바라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온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부모와 아이들을 꾸짖으며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제자들을 향해서 화를 내시고 꾸짖으시면서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어린이. 예수님은 제자들과 어른들 사이에서 어린이를 높여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어린이들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는 어른을 신뢰합니다. 어린이는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낮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낮은 자들이 가장 높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스스로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낮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린이로부터 배웁시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린이는 가르쳐야 할 대상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그들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어린이부터 낮아짐과 겸손을 배웁시다. 어린이는 싸우다가도 쉽게 용서하고 화해합니다. 어린이로부터 화평하는 법을 배웁시다. 어린이는 이 세상을 호기심과 경이로움으로 바라봅니다. 어린이로부터 꿈꾸는 법을 배웁시다. 우리도 한때 모두 어린이였습니다. 지금의 어린이들을 사랑합시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정낙귀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5월의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귀염둥이 막내여동생의 생일 맞자 다 같이 생일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카드의 모양, 색, 그림 등 모든 것이 다른 아주 특별한 카드들이었습니다. 각자 생각한 것을 만들기 위해 선생님들과 얘기하고, 자르고, 붙이고, 그리며 많은 정성을 담아 만든 카드를 다음 주 생일잔치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엄마, 아빠를 가장 사랑하는 꾸러기들과 함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카드를 만들었습니다. 5살, 6살 친구들은 카네이션을 붙여서 만든 카드를 예쁜 카드에 편지를 썼습니다. 7살 친구들은 이번에는 특별히 색종이로 접은 멋진 카네이션화분을 만들었습니다. 오전 내내 열심을 다해서 만든 카네이션 화분 너무 예뻐서 엄마, 아빠들이 너무 너무 행복해할 것 같습니다.

목요일에는 어린이날 잔치를 했습니다. 멋 부리는 날로 꾸러기 친구들 모두 아주 멋지게 옷을 입고 왔습니다. 여자친구들은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 레이스가 많이 달린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왔습니다. 너무 멋진 꾸러기들은 이날 재밌는 영화도 보고, 풍선으로 장식한 경운기도 타고, 보물찾기로 선물도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입에 웃음꽃이 핀 걸 봐선 아이들은 많이 재밌었나 봅니다. 어린이날을 맞은 꾸러기와 세상 모든 어린이들이 축복받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 교사 : 이어람 >

어린이학교

푸르르단 말보다 눈부시다는 말이 더 어울리는 오월입니다.

오월은 어린이 달이라 그런지 첫날부터 발걸음이 가벼웠다는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그러니 어린이들은 오죽했을까요?

축구 하기 좋은 계절, 거기다 멋부리는 날이 있어서 인지 지난달의 어린이들은 좀 붕~떠있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워워를 외쳐주었지만 죽지않는 기세를 몰아 5/4일 멋부리는 날에는 여지없이 뽐을 내주었답니다. 공주님 등장은 당연하고요, 짚신을 신은 엿장수까지 등장을 해서 모두를 웃게해 주었답니다. 축구복을 입고 온 교사도 있었고 잠옷패션을 한 교사도 있었고, 근대여성으로 꾸민 교사까지 볼거리가 풍성했답니다.

담임의 편지와 선물까지 받고 행복하게 돌아간 어린이들이 가득한 어린이학교였습니다.

< 교사 : 하경임 >

멋쟁이학교

누구나 그렇듯, 힘든 일을 겪은 뒤에는 휴식이 필요한 법이지요. 멋쟁이들은 도보여행을 다녀온 뒤, 일주일간을 가정학습으로 보냈습니다. 누군가는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고, 누군가는 만남들을 가졌으며, 누군가는 밀린 학습을 보충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시간들로 보냈습니다. 힘들었던 만큼 뜻 깊었던 여행의 기억을 글로 잘 남기고, 이제는 다시 학교 생활로 돌아올 때가 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들 합니다. 가족 구성원 하나하나에 봄처럼 따스한 관심을 가지는 시기로서, 여러 눈길을 받는 때이기도 합니다. 가정속에서나 멋쟁이학교 안에서도 많은 사랑으로 멋쟁이들의 신앙이 많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 교사 : 이어진 >

어린이날

어린이날에 생활공동체 식구들은 한자리에 모여 어린이를 위한 놀이판을 벌였다. 20명 남짓의 어른들과 4명의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하민이, 하성이, 하온이, 진용이, 민용이, 아영이와 놀아주기 위해 모인 것이다.

첫 번째 놀이는 윷놀이! 내가 속한 팀은 3승 3패로 아주 깔끔하게 다~ 졌다. 진 이유를 분석해보자면 우리 팀 윷가락이 열 번 정도 밖으로 나가서 낙이 되는 바람에 말을 제대로 놓을 수가 없었다. 백도가 나와서 말을 못 놓는 경우도 있었고, 놓으면 상대편에게 잡히고 뭐 그런 식이었다. 그런데 이런 전개가 어찌나 우습든지 마지막 세 번째 판에서는 눈물이 날 정도로 웃다가 졌다.

점심 식사는 모두가 좋아하는 치킨을 진권사님이 튀겨주셨다. 메밀국수와 함께 바삭바삭 맛있는 치킨을 먹은 후 두 번째 놀이가 시작되었다. 두 번째 놀이는 팀별로 다섯 코스(4글자 완성하기, 제기차기, 공기놀이, 손가락 튕겨 골인하기, 모니터를 이용한 디지털 게임)를 돌며 성공하면 암호가 적힌 쪽지를 받아 '황금열쇠'를 찾는 것이다.

두 번째 놀이의 백미는 디지털 게임이었는데, 팀원 네 명이 게임기를 들고 모니터 속 파랑이 빨강이 초록이 노랑이를 옮겨 목적지에 도달해야 하는 것이다. 놀이를 준비한 노미현 사모가 말하기를 이 게임은 초초보용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의 초록이는 참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모두가 답답해 죽을 뻔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 팀원들 대부분은 나랑 비슷해서 아주 맘 편하고 든든했다. 겨~우 성공을 하고 드디어 황금열쇠를 획득했다. 야호!

모든 팀이 황금열쇠를 찾아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예쁘게 포장한 선물을 받았고 어른들은 산삼 박카스(박카스에 종이 산삼이 붙어 있었다)를 한 병씩 받았다.

즐거운 하루였다. 공동체 어린이들도 틀림없이 즐거웠을 것이다. 글을 쓰며 생각해보니 나도 어린이가 되어 하루를 즐긴 것 같다. 어린이들 덕분에 잘 놀았다. "고마워 어린이들아!"

그루터기사랑방 전향옥 집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이어진 전도사
찬 송 : 312장, 559장
성 경 : 전도서 3장 1-13절
말 씀 : 오늘은 무슨 때인가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죽음을 선택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서울 여러 지역에서 가족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을 시도한 사건들이, 4월에는 10대 청소년이 투신하는 사건들도 생겼습니다. 이같이 큰 고통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2. 한국교회와 공동체를 위한 기도 <한국공동체교회협의회를 위해>
   1) 이 땅의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마음이 되도록
   2) 함께 살아가며 좋은 열매들을 맺도록

3.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위한 기도
   5월은 가정의 달, 연령별사랑방 방모임을 위해.
   찾아오시는 손님들을 위해

〈 생활공동체 소식 〉

5월 가정의 달을 시작으로 손님들이 방문도 이어졌습니다.

5/3(수)에는 장신대 박상진 교수님과 기교과 학생들 25명이 사랑방에 방문했습니다. 5/4(목) 꾸러기, 어린이학교 멋부리기 날에는 기대연 사무총장님과 이야기학교 교장선생님이 방문하셔서 많은 사진을 찍어가셨습니다. 손님들에게 식사와 차를 대접해주시고 반겨주신 식구들의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이 날을 맞이하여 공동생활 식구들이 놀이와 작은 선물을 준비하여 어린이들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선사했습니다. 윷놀이도 하고 맛는 점심도 먹고 공동미션 놀이도 하면서 세대간의 합을 이루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장영미 전도사 >